

호남통계청·광주전남기협, 기자 통계교육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는 28일 서구 교육정보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통계포털 등의 통계활용 교육'을 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정만채)은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강진·해남 등 서부권 중학교 교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부모 등 220여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순천대·창원대, ACE 연합교양캠프



순천대(총장 박진성)는 최근 창원대 캠퍼스 일대에서 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순천대·창원대 1차 ACE연합교양캠프'를 개최했다. <순천대 제공>

"한여름밤 녹음 속에서 산노래 감상을"

광주시산악연맹, 내일 풍암호수공원 산상음악회

한여름밤 싱그러움 녹음 속에서 산노래와 시낭송을 감상할 수 있는 산악문화축제가 열린다.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임승진)은 오는 30일 오후 7시 풍암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도심 속 산상 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서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7 시민등산대회' 산악문화과정의 하나로 시낭송과 산악가요, 요들송, 색소폰 연주로 꾸며지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30년 이상 출근 산노래를 불러온 고객 정용주씨가 '지리산' '설악' 등을 선보이며 광주오버바트요넬 클럽(회장 방결원)은 '7000마리의 소'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등 요넬송을 알프스향과 탈리슈빈겐 등 스위스 민속악기 연주와 함께 남성 중창과 혼성 중창, 솔로곡으로 들려준다.

김수영 서구산악연맹 회장의 사회로 라포르 색소폰양상을 단장인 박치영 조선대 의대 교수의 색소폰 연주와 가수 MJ의 공연도 펼쳐진다.

임승진 회장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산악문화축제를 시민들과 산악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스트레스 찌든 사람들과 함께 음악 나누고 싶어요"

하우스 콘서트 여는 오디오 마니아 최경양 건축사



빈티지 오디오 마니아 최경양(60) 건축사는 "오디오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오디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교때 팝·가요 들으며 음악에 빠져 ... 오디오 30개·LP 5000장

지하 리스닝 룸·2층 공연무대 공간 ... 집에서 5년째 클래식 공연

최경양(60) 건축사는 빈티지 오디오 마니아다. 보유한 오디오 시스템이 30조를 족히 넘는다. 프리앰프(pre-amplifier), 파워앰프(Power amplifier), 스피커를 한 조로 구성했을 때다. "앰프에는 좋은 앰프와 나쁜 앰프가 없어요. 단지 개성과 특성이 다를 뿐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팝과 클래식 음악, 현악기 등 앰프, 스피커마다 잘 재생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 들으려다 보니 기계가 많아졌습니다."

40여년 오디오 생활을 해온 그가 수집하고 음악을 듣는 주력 기종은 빈티지다. 7, 80년대 아날로그가 정점을 찍었을 때 생산된 오디오들이 대부분이다. 마크 레빈슨, 맥킨토시, 마란쯔 등 브랜드 제품은 물론 스스로 설계·주조한 진공관 앰프까지 망라한다. 스피커도 옛 극장에서 운운하던 알타를 비롯해 탄노에 계열을 듣는다. 스피커 알맹이는 옛 제품으로 구입해 울림통을 만들어 소리를 조합한다. 그가 보유한 알타 스피커 등 오디오 시스템은 지난 2009년 일본의 대표적 오디오 잡지인 무선과 실험(MJ)에 소개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음악과 소리를 재생한다는 디지털 시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빈티지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슴으로 음악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은 지난 2010년 제14회 광주시 건축상을 받았다. 거북이 처럼 생겼다고 해서 터틀(Turtle) 하우스로도 불린다. 정작, 이 집의 매력은 지하에 리스닝 룸, 2층에 하우스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데

를 나누고 싶어서 집을 공개한다.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짓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선이공대 등에서 건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골라 집에 초대해 음악을 함께 듣는다. 보통 오디오 시스템의 공개를 꺼리는 여느 마니아와 다른 점이다. 친목계 모임에서도 청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한다.

그는 앰프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집을 공개한다.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짓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선이공대 등에서 건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골라 집에 초대해 음악을 함께 듣는다. 보통 오디오 시스템의 공개를 꺼리는 여느 마니아와 다른 점이다. 친목계 모임에서도 청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한다.

그는 앰프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집을 공개한다.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짓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선이공대 등에서 건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골라 집에 초대해 음악을 함께 듣는다. 보통 오디오 시스템의 공개를 꺼리는 여느 마니아와 다른 점이다. 친목계 모임에서도 청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한다.

그는 앰프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집을 공개한다.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짓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선이공대 등에서 건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골라 집에 초대해 음악을 함께 듣는다. 보통 오디오 시스템의 공개를 꺼리는 여느 마니아와 다른 점이다. 친목계 모임에서도 청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한다.

그는 앰프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집을 공개한다.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짓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선이공대 등에서 건축학 강의를 맡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골라 집에 초대해 음악을 함께 듣는다. 보통 오디오 시스템의 공개를 꺼리는 여느 마니아와 다른 점이다. 친목계 모임에서도 청음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한다.



지난 24일 열린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8주년 기념행사에서 목포 광명원 원생들이 핸드벨 연주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제공>

"당신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 줍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용봉점

개점 8주년 기념행사 열려

"당신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은 내일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개점 8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헌책방에서 열렸다. '책 나와라 똑딱! 꿈 나와라 똑딱!'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간단한 기념식과 목포 광명원 원생들의 핸드벨 연주가 열렸으며 시민들이 기증한 책과 물품

들을 판매했다. 이날 하루 동안 시민 163명이 모두 1836건의 물품을 구매, 366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상품세를 제외한 수익금 300만원은 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박 모양 등 초등학생 3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삼각·용주·태봉 초등 학교 어린이들과 미래에셋, 사학연금공단, 광주일보가 책을 기증, 나눔을 함께했다.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책방음악회'를 열고 있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

화순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회' 성료

영·호남 화합을 위한 검도대회가 최근 화순읍 하나체육관에서 성료됐다. <사진>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경남 사천시 검도회가, 준우승은 광주시 남태운관, 3위는 고흥군 검도회와 신안군 검도회가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 여자부는 대구시 휘검회 이연지 사범이, 청년부는 광주시 남태운관 김우석 사범이, 장년부는 부산시 센텀조은관 이남수 관장이, 중년부는 화순군검도회 황천일 사범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영·호남 3대 이상 사범급 선수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회'에서

박연주 화순군 검도회장과 정갑재 진주시 검도회장이 공동으로 영·호남 화합 선언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주종광 전남도 검도회 회장은 "검도를 통해 영·호남간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화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 ◆교육부
 - ▲목포대 서기관 이진웅 ▲순천대 서기관 강두중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나명영(아마란도·전 광주일보 국장) 김윤정(마르시아)씨 장남 현철(프란치스코)군 이현복·김숙례씨 장녀 하영양=7월2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홀.
- ▲김영선씨 장남 현우군 안상남(여수법무사)씨 차녀 대화양=7월8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등문회

- ▲광주 효동초등학교 45회 동창회(회장 오경열) '응답하라 1987 상상하라 2017' 행사=7월1일(토) 변산국립공원 일대서 진행.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관광버스 출발, 문의 오경열 회장 010-6286-370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7월5일(수)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 커뮤니티(학숙동아리) 지원= 사교나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 토론, 활동이 있는 5명 이상의 중장년층 참여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23(금)까지 접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062-600-5241.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차·두암·무등·우산·각하)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모집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 동년배 상담실 운영=제2인생설계를 위한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재무, 건강, 관계 등. 매일 오후 1시~6시. 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 문의 062-600-5242.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동 010-9092-0343.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치매,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가능항상지원팀 062-943-0420.

-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슬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배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심리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중·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박상림 남(여/86세) 子/子婦 : 최은동/유영주, 현동/전진영 女/婿 : 최숙경/최연홍 孫 : 최유선, 문정, 희승, 재원, 유리, 영준, 지우, 선유 •발 인 : 6월 30일 •장 지 : 부활의 집	301호 故노경화 남(여/76세) 子/子婦 : 장준상/최영숙, 영삼/박미영, 원삼/김화순 女/婿 : 장미숙/박수영, 미영/이길성, 경숙/김남호 •발 인 : 6월 29일 •장 지 : 화순 도곡 선영	101호 故정태영 남(남/65세) 子/子婦 : 정만우/최일연 女/婿 : 장미경/한수민, 수경 孫 : 이영삼 •발 인 : 6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102호 故정덕영 남(여/66세) 子/子婦 : 이기성/최일순, 민삼/박민아 女/婿 : 이선아/김선민 孫 : 이영삼 •발 인 : 6월 30일 •장 지 : 영락공원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